



여름, 그 위에 서다



양철지붕 위로 “후두둑, 후두둑” 햇벌이 내린다.  
마당 가득 고여 있던 햇벌이 마른 도랑을 따라 흘러간다.  
마을을 지나, 산을 넘어, 강을 따라, 바다까지…  
더운 손가락을 내밀어 차가운 바다를 만져본다.  
차가운 바다가 움찔하고 몸을 뒤척인다.

살짝 도망가면 햇벌이 다시 등을 밀어 넣고  
바다는 이만큼 도망을 친다.  
발끝을 들어,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여름, 그 위에 서서저만큼 바다를 바라본다.  
아직 햇벌이 가득하다.